

제품디자인과 Affordance
Concept
(Affordance in Product Design)

김 정오
Jung-Oh Kim
서울대학교 사회대 심리학과

제품기능의 지각된 어포던스(perceived affordance)란 도구, 장비, 물품과 같은 물체의 경우 사람이 그 물체를 처음 보더라도 그 물체가 어떤 기능을 할 수 있고, 그에 대해 어떤 행위나 조작을 가할 수 있는지를 지각함을 말한다. 예를 들어, 구멍이 있는 병 따개는 그 구멍이 뚫린 모양과 그 짧은 손잡이가 마개를 여는 행위를 쉽게 알아차리게 하며, 망치의 긴 자루는 그 끝을 손으로 움켜 쥐어 팔처럼 휘두르는 행위를 지원한다.

어포던스는 지각심리학자 Gibson (1979)이 발전시킨 개념이다. 어포던스는 유기체가 잠재적으로 해낼 수 있는 행위와 그가 처한 환경, 예컨대, 장소, 물체 또는 사건간의 독특한 관계를 지칭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어포던스는 지각되는 물체의 속성을 명세하는 정보와 그에 적합한 지각자의 행위 능력과 구조 제약을 명세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망치를 다시 예로 들면, 망치의 머리는 무엇을 부술 정도의 단단한 속성을 명세하며 그 자루는 그것을 움켜 쥘 수 있는 사람의 제한된 손바닥 크기, 휘두르는 동작의 타당성 등을 명세하고 있다.

이 세상 대부분의 대상들은 그것이 땅이든, 동물이든, 인공물이든, 식물이든 다양한 표면을 가지고 있다. 아스팔트, 모래밭, 자갈길, 계단, 바다 등은 각기 다른 표면을 가지고 있고, 각 표면으로부터 반사되어 나오는 빛의 패턴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과연 발을 디딜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식으로 걸어갈 수 있는지를 어포드(afford) 한다. 견고하게 보이는 표면

과 움기있는 표면, 일정한 높낮이를 가진 표면은 각기 사람이나 동물에게 발을 어떻게 디뎌야 할지를 즉각 명세한다. Shaw와 Turvey (1981)은 깃손의 어포던스개념을 도구 지각에 적용하였다. 즉 이들은 어포던스와 효과성의 이중원리를 제안했는데, 이 원리에 의하면 도구의 지각이란 다름이 아닌 그 도구가 지각하는 사람에게 afford하는 기능과 지각하는 사람이 그 도구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간의 상보적 관계이다. 예를 들어, 층계는 사람에게 걸어 올라가는 기능을 어포드하지만, 그 사람의 무릎 길이에 비해 각 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올라가는 기능이 많은 노력을 요구하게 된다. 이런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어포던스개념이 가장 잘 활용된 장난감이 바로 레고 블럭이다.

어포던스개념을 제품 및 시각 디자인에 체계적으로 적용하기를 강조한 사람은 인지심리학자 Norman (1992)이다. 상품이나 어떤 물건을 디자인할 때 핵심은 지각된 어포던스인데,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한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어떤 장치나 물건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게 된다. 예를 들어, 밀수 있게 보이는 물건은 밀고, 당길 수 있게 보이는 물건은 당긴다. 따라서 각 상품이나 제품이 분명하고, 명료하게 지각될 수 있는 어포던스를 하나만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은 번거롭게 설명서를 읽지 않고서도 잘 다룰 수 있다. 어포던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제품이나 상품일수록 다루기 어렵고 매뉴얼을 읽어야 하는데, 그 까닭은 여러 가능한 행위나 동작들 중 어느 것을 택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전자 제품을 위시한 일상 용품들이 사용자들에게 최소 기능을 제공하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 이유는 usability 측면에서 보면, 한 제품이 아무리 좋은 기능을 제공하더라도 소비자가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쉽게 습득할 수 없으면 결국 쓸모 없게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제품의 어포던스를 높이려면 다기능주의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 심지어 TV와 신문과 같은 매체도 사람들의 독특한 정보처리 능력들(예, 병렬처리, 순차처리, 정보선택성)을 지원하는 점에서 크게 대조된다. 다양한 제품의 디자인에 있어서도 어포던스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간의 인지특성에 잘 부합하는, 고부가 제품을 생산하는 쪽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시각디자인에 있어 어포던스 원리와 그 적용을 다루는 개념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